

## 尹 헌재 탄핵심판 첫 출석...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어”  
군경 핵심관계자 증언과 상반된 주장  
‘부정선거’ ‘팩트확인’ 자기변명 일관  
재판관에겐 “송구한 마음” 자제 낮춰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불법적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의 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서 국회나 법정에서 증언에 나선 군경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관련기사 2·3면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나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모두 부인했다.

문행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이진우 수방사령관, 광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답했다.

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매도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돼 있어



변호인과 대화하는尹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 차기헌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해 12월3일 오후 10시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입법 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

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쪽지의 내용을 묻자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 자료”라고 답변바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 온 ‘부정선거론’에 관해서는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는 등 자기변명으로 일관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변론이 시작된 후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과 재판 진행 안내가 끝나자 별도로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앞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다. ▶2면에 계속 /김진수 기자



취임 선서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트럼프 美대통령 취임...“미국 우선주의” 재선포

연방의회 의사당서 취임 선서  
권력 승계하며 4년 만에 복귀  
“무역시스템 재평가 관세 부과  
비상사태 선포 불법이민 차단”

부동산 사업가 출신의 ‘워싱턴 정계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만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미국 우선주의의 시

대 20’을 선포했다.

2017년부터 4년간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턴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며 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나는 매우 단 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단 하루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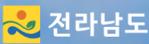
통상 및 국내 정책 면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선명하게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시스템 재점검 및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확대) 방침을 밝히고, 전기차

우대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했다.

남부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남부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는 한편, 서류없이 입국한 사람들의 심사 대기기간 중 미국내 체류를 불허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불법 이민자 차단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Today	
국무조정실, 화순군 공무원 비위 조사	6면
장갑수와함께 걷는 길...정남진 장흥	14면
김도영, '4년차 최고 연봉' 5억 찍었다	16면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울타리 전라남도

### 2025년 1월부터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1세(12개월)부터 18세까지 월 최대 20만원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1세가 되는 생일달에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정부24 접수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내용
'24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생후 12개월이 된 아동	출생아동과 부모 모두가 함께 전남에 거주	도 수당 10만 원 시군 수당 10만 원 *시군 형편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